

Priere pour Mali

Adress : M. Jung In Kwun
B.P E4160 Bamako Mali
West Africa
TEL (223)9215-4340
E-mail : jiktlc@hanmail.net
한국 우리은행
19507028378 류관숙
말리 사역 후원 -우리은행-
1002-340-728055 정인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마 14:15-2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벌써 2024년 11월 소식을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 갔지만, 지나간 시간도 은혜요, 앞으로 올 시간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아쉬워 하지만 그 아쉬움 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말리 소식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리상황

말리의 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리의 우기가 금년에는 너무도 많은 비가 내려서 말리 전역에서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77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 그리고 26만명의 홍수 피해자, 400여개의 학교가 침수 피해를 입어서 10월 3일 개



를 입어서 10월 3일 개학일이 11월 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말리의 여러 복잡한 상황과 자연재해로 말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갑작스럽게 말리 총리가 총리직에서 갑자기 물러나서 혼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기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루에 3-6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곳 세누는 여전히 전압 문제로 인하여 냉장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말리 북부의 테러는 여전히다는 소식입니다. 작은 마을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말리의 녹록지 않은 상황(정치적, 경제적, 전기문제 등등)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리사역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로 10월 말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습니다. 6개 학년에서 140여명의 학생들이 성경과 학교 공부를 하면서 복음센터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지식을 쌓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특히 무슬림이 99%인 이 지역에서 기독교 센터와 학교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한 어린이들이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방치 되지 않고 비록 오전 시간이지만 보호 받고 공부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귀한 시간을 제공하고, 기독교 문화를 조금이나 체험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세누 마을에게 복음센터가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조금씩 자리잡는데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학교 2024-2025년 새로운 학기 시작



복음학교는 11월 4일 정부의 방침대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학년에는 29명의 학생들이 복음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까 교사들과 기도하며 새로운 학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6학년까지 66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작은

역할(성경 암송, 예배, 찬양 등등)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매일 아침 성경암송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고, 바캉스 기간부터 시작된 성경 쓰기가 몇 명의 아이들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만에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선생님들과 제가 엄지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 작은변화들이 이 세누지역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희들의 자립 목표는 한반에 30명 180명입니다. 아직 3-4년은 더 있어야 하겠지만 변화되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학교가 이 말리 세누 지역에 복음의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해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와 복음학교를 시작한 Charles 선생님이 매우 아픕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8월부터 급격히 몸이 좋아지지 않았고 11월 초에는 몸무게가 20kg이상이 빠져서 당뇨로 인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보건소가 아닌 개인 병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였고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심근증(저와 비슷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심장상태가 정상인의 25-30%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악한 의료상황이기 때문에 오진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뇌졸중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너무도 좋지 않아서 학교 사역과 모든 일을 놓고 집에서 요양하도록 조치를



치하고 있습니다. 뇌졸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인지, 가끔 멍하게 앉아 있고, 아이처럼 가끔 행동하고 휘청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샤를 선생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6월까지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약 8개월간의 시간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치료와 생활, 그리고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치료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선생님이 임시 교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교사 한명을 더 고용해야 합니다. 외곽이기에 기독교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사 채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학년 교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잘 적응하며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사역

토요 프로그램은 정착이 되어서 교사들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토요 모임을 통해서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적응을 해서 교사들이 리드에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여러모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찬양과 성경암송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슬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의 비가 그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누지역의 타 교회와의 연합예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교회 목사님들도 흔케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견제가 아니라 협력하는 것에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사 교회들의 행사가 연합으로 진행되면서 풍성한 예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신년 감사 연합예배) 함께 연합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리에 기독교인들이 적고 세누지역의 교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좋은 말씀을 공유하며 성도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자로서 성장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세개의 세미나실 중 하나에 책상과 의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게실겸 작은 세번째 세미나실을 또한 일부 책 걸상과 싱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공부와 성도의 교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실에서는 중 고생들을 학업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NGO 사역

말라리아 퇴치 사역은 10 월 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50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곳 주민이 10 만명이 넘습니다. 그 중의 일부 가정이 혜택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지난 미셀 선생님이 보고를 한 것처럼) 모두 말라리아가 발병이 줄었고, 다른 벌레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지 않은 가정들이 내년에는 꼭 자신의 가정도 받기를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발병률이 심한 이 말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로 인하여 복음전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1 월에는 우물을 시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모금을 해 주셔서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기가 지난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식용은 불가합니다) 2-3 월부터는 그 물은 마르고 시추된 곳에서만 물이 나와서 큰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이번 우물 시추로 인하여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 그리고 도움이 세누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2025 년을 위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하지 않고 저와 4 명의 교사들이 영성, 교육, 보건, 그리고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리 복음센터 사역을 위한 제안

이제 센터 건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에서도 3층 게스트 하우스와 세미나 실이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센터를 세운 것은 저희들 사역뿐 아니라 분명히 이곳 말리 기독교인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건축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이분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게스트 하우스 샷시(총 6개실)와 침대 세미나실,

그리고 학교와 교회 문 제작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15,000유로 정도 됩니다. 또는 각각 약 1,000유로 하나의 게스트 하우스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매번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곳에서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그 사역을 위해서 늘 죄송한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 세누지역에 복음센터가 복음전파의 큰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 토요 영성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주 30만원의 재정이 채워지도록(프로그램 진행과, 식사, 간식등등)
- 샤를 선생님의 건강(뇌졸중, 심근증, 고혈압, 당뇨의 치료와 그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 정인권 선교사(비후성심근증)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 세누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가 늘 유지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 새로운 교사의 적응과, 4학년 임시 교사 채용이 속히 될 수 있도록
- 중고생 사역과 필요한 책 구입을 위해서(약 30권정도 필요합니다. 권당 6000원)

2024년 11월 정인권 선교사 올림